

정치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민주당 김두관 후보

“서민이 키워준 후보만이 개혁 가능”

만남사람=박지경 서울취재부 차장

민주당 김두관 후보는 까다로운 질문에 비교적 여유있게 답했다. 그의 답변에는 힘과 자신감이 넘쳤다. 특히 참여정부와 친노(친노무현)와 관련된 질문에는 확고한 소신을 보여줬다. 뻣뻣한 일정 탓에 인터뷰는 지난 11일 오후 광주의 한 커피숍과 나누로 가는 차 안에서 이뤄졌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화두는 뭐가 될까.

▲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변화와 혁신, 공평과 정의다. 정치 혐오와 정치불신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혁신, 이명박 정부 들어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양극화를 치유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시스템 혁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다.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해결 등 개혁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에서부터 서민과 함께 서민이 키워준 김두관이다.

-왜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말모양 잘하겠다고 하는 후보가 아니라 혁신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는 후보를 원한다. 저는 하는 것마다 혁신이었고, 그 결과는 항상 1등이었다. 최연소 군수로 남해를 지방자치 1번지로 만들었다. 묘지개혁을 하고, 스포츠마케팅으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소각장 대신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을 바꿨다. 도시사 시절에는 정부지원이 없었지만, 노인들만을 무료로 공급하고 보호하지 않는 병원을 운영해서 보편적 복지를 확대했다. 도정 1년 도민평가 결과 73%가 잘했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정부를 운영한 연합정치와 소통의 달인이다.

-경남지사를 중도에 그만두고 대선에 나오는 데 대한 비판도 있다.

▲'2012년을 점령하라. 2013년 체제를 만들자'는 것은 상당히 많은 국민 사이에서 수용되고 있는 목표라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 내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은 훌륭하지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표의) 확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나온 것이다. 아직 도민들의 섬세한 마음이 가지지 않은 것 같다. 지금은 질책을 달게 받겠다. 언젠가는 제 진정성을 알아주리라 믿는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보다 애

고향·출생지 기준 '영남패권주의' 동의 못해 문재인 후보 특정계파 대변·정치경험 없어

착이 있을 것으로 안다. 참여정부에서 노력했으나 아직은 피부에 와닿을 정도는 아니다. 획기적 방법이 없을까.

▲지방분권 국가의 4대 기조는 분권국가 시대, 균형발전시대, 시민자치시대, 지역주의 거부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지방재정 분권 강화, 교육자치 확대, 지방 국립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지방검사장·병원장 주민직선제, 공역자치경찰제 실시, '분권형' 개헌 추진 등이 있다.

-경제가 심상치 않다고 한다. 위기의 한국 경제를 살릴 방법은.

▲분배가 곧 성장이다.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민과 부자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99%의 행복을 위해 1%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설득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다. 특히 남북화해를 바탕으로 북방경제권을 발전시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열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남이 본경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를 예측한다면.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는 전략적 투표를 한다. 누가 기득권과 재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강력한 개혁을 할 것인지, 지방분권·지방균형발전을 이루고 남북평화체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부터 노무현 돌풍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는가. 호남민 여러분이 옳은 결정을 할 것이다.

-정치인은 모두 특히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호남에 애정을 갖는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여전히 호남발전은 더디고 영남과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무엇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지역성이 기초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구도에서는 정치인이 지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여당(새누리당) 정권은 노골적으로 자기 지역에 더 퍼부었다. 그리고 이명박정부 들어서 노골적인 퍼주기 대신 무뎠다. 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겠다. 인구 수로 하면 호남이 불리하기 때문에 호남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인사당평을 할 것이다.

-그동안 영남 출신이 대통령을 거의 독점

해왔고 또 현재도 유력한 후보는 모두 영남 출신이다. 이에 대해 '영남패권주의'라는 비판이 있다.

▲영남 출신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저는 고향이나 출생지를 기준으로 '영남패권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영남패권주의는 특정 집단이 지역성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독점하기 위한 것이었다. 영남 패권주의에 도전한 사람이 출마한 것을 어떻게 영남패권주의라고 할 수 있나. 영남 패권주의를 균열 내기 위한 시도도 봐야 한다. 나는 한 번도 지역감정이나 지역성을 이용해 정치를 하지 않았다.

-김 후보의 정체성은 뭔가. 즉 친노(친노무현)인가, 아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하느냐는 측면에서 범친노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이 패밀리(family) 개념으로 본다면 그런 친노는 아니다.

-참여정부 실패론에 대한 입장은.

▲참여정부의 공(功)은 계속하고 과(過)는 성찰해서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노무현의 자세가 아니다. 잘못된 것이 없는 정부가 어디 있겠나. 뭐가 잘못됐는지 냉정하게 분석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해결책을 찾아나서는 것이 진정한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후보 불기문을 주장했다. 그 이유는.

▲문 후보는 특정 계파의 이해를 대변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지지층 확장에 한계가 있다. 과거 정권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스스로 고백했듯이 정치경험이 없다.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가면 국민에게 외면받는다. 이번이 있어야 감동이 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민주당은 그와 어떻게 해야 하나.

▲안 원장이 훌륭하긴 하지만, 정당 기반이 없고 지지지역과 계층이 뚜렷하지 않다. 거기에 정치경험이 적어 차기 개혁정부를 이끌어 나가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공동 정부를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이 볼 때 가치의 공동 정부가 아니라 자리의 공동 정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단소히 김두관-안철수의 타협과 협상이 아닌 각계각층이 연합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국정협의회 같은 모델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본다.

/jkpark@kwangju.co.kr (사전=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37세 최연소 남해군수 당선된 '리틀 노무현'

■ 걸어온 길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리는 김두관 대선 경선 후보는 1959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다. 김 후보는 부산에서 동아대를 졸업하고 이듬해인 1988년 처음으로 총선에 출마했다 떨어졌다.

이후 그는 고향인 경남 남해 고현면 이어리로 돌아와 농민운동에 투신해 마을이장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민주당의 실천기 위해 고향 주민의 손발이 되겠다며 청년대장이 된 후 마을의 굶은 일은 모두 다 그의 몫이었다.

같은 시기 그는 민중의당 지구당위원장으로 정당 활동을 시작하는 한편, '남해신문'을 창간하는 등 사회활동의 폭도 넓혔다. 1995

년 민선 1기 남해군수에 도전해 37세의 나이로 당선돼 최연소 기록을 세웠고 1998년 재선됐다.

첫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2004년과 2008년 연속해서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역시 실패를 맛봤다.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2002년 도시사 선거에서도 역시 지역주의 한계를 느끼며 고배를 마셔야 했다.

낙선한 그는 이듬해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에 발탁돼 지역구도 타파와 학력·경력주의 파괴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리틀 노무현'이란 별칭도 얻었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 지역주의 장벽에 도전해 5전6기로 승리하는 짜릿한 기쁨을 맛봤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지지 기반 지역구분 없고 非盧 인사도 망라

■ 김두관의 사람들

김두관 후보를 돕는 사람들은 영남·비영남 등 지역 구분이 전혀 없다. 각계각층 전문가를 물론 참여정부 출신과 비노무현 성향의 인사도 망라돼 있다.

캠프에서 전정배 전 법무부 장관과 원혜영 전 원내대표가 공동 상임경선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비서실장은 김영록 의원, 대변인은 김관영 의원·전현희 전 의원이 맡고 있다.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김태광 전 국회 사무총장, 이우재 전 의원, 김덕규 전 국회의원의 장은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 윤덕홍 전 교육부 장관, 김중권 전 민주당 대표, 김광림 전 의원

은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전·현직 의원그룹에선 이호웅 전 의원이 상임경선대책본부장을, 김세웅·유재규·조배숙·홍기훈 전 의원이 공동경선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조직위원장은 안민석 의원, 조직본부장은 문병호 의원, 홍보미디어위원장은 김재운 의원, 전략본부장은 민병두 의원이 맡았다. 지방분권추진본부장에는 최근 복당한 유성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외곽지지만체인 '괴어라 들꽃'은 시민사회와 문화계 인사를 주축으로 김 후보를 돕는다. 신경림 시인이 대표로, 노혜경·정희성·문병란 시인,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 김병상 신부, 정선준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 각계 인사들이 김 후보를 지지한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다와옥션 www.dawauction.co.kr
다와옥션 부동산 경매학원
호남유일의 정통 경매학원! 불만족시 수강료 전액환불!
실전기반본 : 매수 수요일
오전 : 10시 30분/오후 : 저녁7시 (3개월 16주 과정 25만원)
강사 : 이 정석 교수(저자직강)
목요특강 : 매주 목요일
오후 : 7시(교육참가시 확인요망)
과목 : 세무,민법,부동산정책,기타
기본경매와 보수교육
수시모집중(기수별 선착순 30명)
국내유명강사 초청 특강(강좌제)
문의 062-352-8589 (010-8004-6767)
남구 월산동 돌고개역 1번 출구/ 신한은행 4층(구.전남경찰청 4거리)

금당 공인중개사 건물매도
*요양시설용 건물 동구 매지197 건평807 법인이전함 9억
*요양시설 등 적합. 화순군 도곡 매지 302평 건평 505평 4억7천
*총장로 수려, 매지 27 건평 30 공사가 1억9200 매도 1억7천
*오지동 소방서앞 3층 상가주택 매지11 건평105평 3억4천
*유동 로터리 매지 240 건평 818 대출 18억, 병문, 요양시설 적합 법인이전 2억
*부문동 일고 부근단층 상가 주택 매지 36 공사지가 1억 250000000 매도 2억 200000000
*안동신당과 여관 대출 2억 매지 89건평 256 교환가능 3억2천
*동구 공동 매지 100평 6층 건물 416평 5억 7천
*북구 화양동 땅 719평 주택 2채 있음 사할등 적합
*담보용 물권, 춘천시 집합건물권지 저하 377평 법상가 34억6천 6천 12억 9천 법인이전 5억 8천
나대지
*총장로5가 상업지역 104평 주택은 철거해야함 원물 생활주택적합 공사지가 매도2억5600만원
*공공부지 광명군 해보면 1725평 국도 옆평 2억8천
*중동상업지역 106평 3거리 코너 공사지가 4억7천 매도 5억4천
*공공부지 나주시 반남면 잡종지 5160 5억4천
*계림동 상업지역 155평 공사지가 6억3300 매도 5억
*신안동 전남대 앞 4거리 대로면 상업지역 249평 생활주택형 오피스텔 적합 공사지가 9억 4천 매도 7억7천
시골주택 및 주택지
*화순 남면 매지76 주택은 수리해야함 1500만원
*장성 서삼면 금계리 매지 326평 건평 47 교환가능 1억3천
*보성군 대원사 입구 광주에서 25여분 거리 경관좋은 땅 505평 평당 17만원(3600만원) 예술인 창작작업에적당
222-4994, 010-2632-5659, 금남로5가 광주고용센터 옆

수완지구 상가임대분양
1층~7층 (20평~210평) 분할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학원/병원 한의원/독서실 편의점/약국 분양임대시 특별할인중 교환,매매전문
상가
3억~100억까지 교환및 매매합니다.
토지/아파트/상가/기타
주)신한아이디 062)527-7600

역세권 상업지 토지금매
운천역 1분 코너
중심상업지 250평
최고위치!!
상가, 도시형 오피 적합
★매가 상담부 결정★
원룸매매(신축)
전대, 조대
쌍촌동 수완지구 5억부터 12억까지
062)961-3377

매매교환 전문 빌딩,모텔,땅 상가 건물
매수 매도 대기중
■건축상담■
예산 부족으로 건축을 그만두고 계시는 분! 부지를 가지고도 경향이 없어 건축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
호텔! 무인텔! 시유나! 빌딩! 주택! 상가건물!
건축비, 시공비 없어도 신축에서 준공, 분양까지!!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망설이지도 마시고 모든 것을 지금 상담해 주십시오. 신축한 건물 신축 공사 가능합니다.
●지금 계속원 상담받고 있습니다●
■구인■
함께 할 수 있는 성실하고 의지가 강한 당신을 기다립니다.
최기철공인중개사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965-201호
062)956-6660
010-2139-6255
FAX. 956-6608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교로2길(상기빌딩매매)
* 서구 수완지구 상가빌딩 매지 180평 건평 873평
* 서구 상가지구 상가빌딩 매지 501평 건평 1415평
* 서구 수완지구 상가빌딩 매지 150평 건평 884평
* 서구 화정동 로마노트부근 모텔 매지 99평 건평 344평 룠 00실
* 남구 신월동 상가빌딩 매지 620평 건평 2181평
* 북구 신안동 전대전문 상가빌딩 매지 156평 건평 600평
* 북구 두암동 동강대우동 원룸 매지 171평 건평 98평 방15실
* 광산구 우산동 상가빌딩웨딩홀 매지 1741평 건평 94000평
* 광산구 신창동 보전대 부근 매지 630평 건평 460평
* 매지 남해동 상가빌딩 매지 119평 건평 210평
광고물건 (토지매매)
* 서구 수완동 매지 1000평
* 서구 서창동 매지 948평
* 북구 두암동 매지 500평
* 광산구 송산유원지부근 매지 1010평
* 광산구 수완동 매지 10,737평
* 나주 금천면 월곡리 매지 3,200평
* 나주 왕곡면 옥곡리 매지 1,900평
최상의 전월세권 적합 부지 매매
* 무인도 해제면 창매리 지도방향 바닷가부근 매지 2,340평
* 창성군 남면 행정리 매지 500평
* 광안동 덕래리 매지 2,800평
956-6660-010-2139-6255

대인동심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현 011-602-2532 (광주은행 신촌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